

새로운 세기의 고민, 출판이 반걸음 먼저

기획자들이 바라본 1999년의 출판흐름

세기 전환 예측서 꾸준 문화 강조한 책 필요해질 것

형난옥
현암사 주간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세기가 과거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미 21세기를 향한 엄청난 변화의 조짐을 발견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평상어가 된 정도다.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역류하는 경제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역류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출판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주었다. 침체된 경제는 급작스레 회복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현실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오는 세기를 바라보는 예측서가 꾸준히 관심을 끌 것이다.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접근한 책, 시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은 책을 독자는 원할 것이다. 지적 혁명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드높기는 하지만 평범한 독자들은 갈수록 가벼워지는 주머니 사정 탓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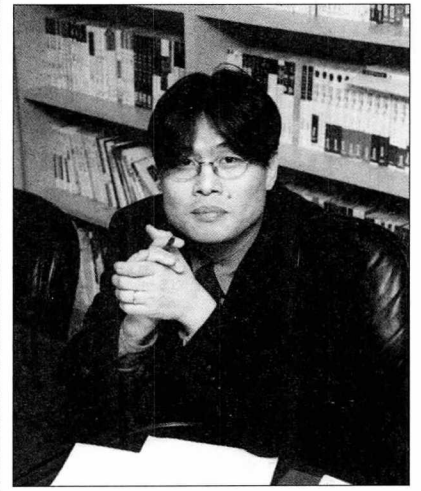
도서구입에도 신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독자 중심으로 교양을 고급화하는 이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자꾸만 가속화하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보통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또 다른 곳에서 존재할 테니까.

문화영역 출판 개념도 급속도로 바뀔 것이다. 매사에 문화적 감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문화예술 장르의 출판만으로 문화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문화를 강조한 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문화가 산업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돼 삶의 양식과 삶의 기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며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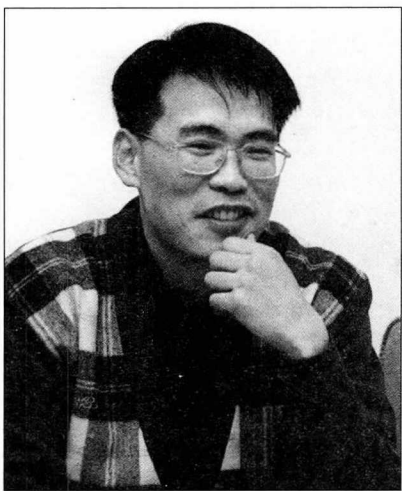
판타지 문학 관심 최고조 미래서와 함께 뿌리찾기 이어져

이문재
문학동네 주간



학제간 네트워크의 성과물 학술출판, 형식에 대해 고민해야

최성균
민음사 기획위원



어느 철학자가 말하길, 나는 철학의 세속화가 아니라 세속의 철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 학술출판에서도 대중적인 독자가 가능한지 섣판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의 학술출판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애초부터 상업적인 목표를 가진 도서의 출판도 어려운데 하물며 학술도서는 더욱 말해서 무엇하냐는 것이다.

매년 인문학 분야에서 만 편 이상의 논문이 쏟아지지만 대부분 출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가공능력과 출판조건의 열악함이고 원인이다. 가공에 한계를 지닌 학술도서가 대중도서와 동일한 롤로 시장에서 싸우고 살아남아 잘 팔리리라는 주장과 희망은 억지에 가깝다. 학술서는 분명한 독자층과 사회적 필요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학술도서 출판의 어려움은 어찌 보면 대학도서관을 비롯해 증정본이 30%를 차지하는 지식사회 중심의 그릇된 연결망(?)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공공도서관, 대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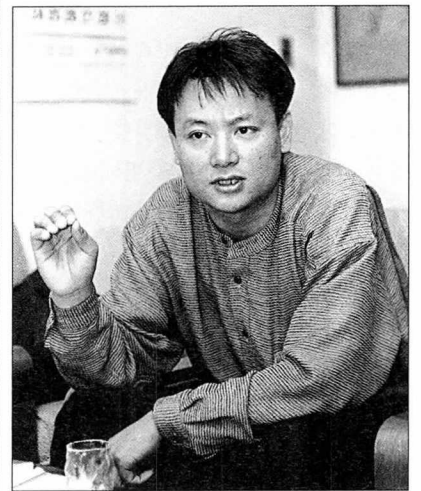
서관, 관련 독자만 하더라도 초판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데 말이다.

학술도서는 현재 사회적인 관심사와 대화할 수 있는 더욱더 다양한 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거대담론이 일상성과 결합할 수 없다면 오히려 논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굳이 학술도서를 치열한 격투장으로 내보내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형식과 사소한 소재가 학문의 천박화는 아니다.

학제간의 공동연구에 의해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더욱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의식주 문제의 고민을 다양한 형태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일상성 연구와 함께 학제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실현된 성과물이 출판되어야 한다. 수만 명의 지식인이 수천 명의 대중을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로 학술도서를 출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로운 중심에 대한 논의 기대 지식·문화의 가능성이 희망

김학원
푸른숲 주간



'호치키스'와 '종이찍개'

최용기 · 국립국어연구원



어떤 물건이든지 수입이 될 때는 그 이름도 함께 들어오게 마련이다. 이런 말들이 널리 퍼지기 전에 순화 용어를 미리 제시해 준다면 국적 불명의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도 어느 정도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널리 퍼진 말 중에 '호치키스'와 '제록스 카피'라는 말이 있다.
"김 선생님, 호치키스(→ 종이찍개) 좀 주시겠습니까?"

'호치키스(hotchkiss)'는 'Hotchkiss paper fastener'의 약어로서, 한국식 영어 표현이다. 본래 이 말은 미국인 발명가 이름을 따서 지은 상표 이름으로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니었다. 원어에서는 이를 '스테이플러(stapler)'라고 한다. 이 '스테이플러'라는 말은 직역하면 '꺾쇠(또는 거멸못)로 매는 것'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이런 국산품 물건이 없어 외제품을 파는 뒷골목에 가서 암거래로 물건을 사기도 했는데, 요즘은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 물건이 매우 많아졌다.

그런데도 이 물건을 가리키는 별도의 우

리말 이름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호치키스'라는 상표명이 보통명사로 굳어져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물건은 꺾쇠

모양의 단단한 철사못을 여러 장의 종이에 눌러 박아 한 덩어리의 묶음으로 만드는 간단한 장치이다.

《국어순화자료집》(1992,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종이)찍개'로 순화를 하였다.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자주 쓰다 보면, 입에 익어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

- 제록스 → 복사, 복사기
- 카피 → 복사

이 글은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심재기)이 펴낸 월간 《새국어소식》(99년 1월, 비매품)에 실린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출판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자리에 나서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그러나 난세에는 '바보'에게 길을 묻는다는 고사에 기대어, 흐린 눈 크게 떠본다.

올해는 판타지 문학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판타지 문학은 문화산업의 발원지이자 저수지.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판타지 문학의 성공과 직결된다. 애니메이션·게임·출판문화·영화 등 국내외 인접장르와 접착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출판이 문화산업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판타지다. 아직은 성취보다는 가능성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판타지 문학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순수문학 쪽에서는 정통적인 작품이 살아남을 것 같다. 독서시장에서도 거품이 빠졌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순수문학 독자들의 실체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희경 이후를 이어나갈 패기

에 찬 신인작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도 99년 순수문학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대학입시 환경의 변화는 출판계를 늘 긴장시킨다. 대학입시가 암기형에서 사고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출판기획도 기민하게 변화할 것 같다. 그것은 우선 고전과 인문학 안내서로 드러날 텐데, 이 기획의 성과에 한국 출판의 한 미래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동화와 장편소설 사이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던 청소년 독자를 위한 책들도 하나 둘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밀레니엄을 노래하는 확장기들이 연일 볼륨을 높이고 있다.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책들이 잇달아 진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뿌리를 차근차근 확인하는 한국학 관련 책들이 '조용한 두각'을 보일 것이다. 한국학 저자들은 동아시아론과 연계되면서 꾸준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2000년으로 이어지는 1999년의 보편적인 주제는 '변화'이다. 세계적인 전환기를 맞아 인류는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그 속에서 사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인가? 이 화두가 1999년과 2000년, 두 해의 출판을 이끄는 기조가 될 것이며 이 물음에 출판이 어떻게 답해 나갈 것인가가 전망과 과제에 핵심일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힘써왔던 지식사회와 문화의 가능성이다. 전쟁 후 50년 동안 이어진 높은 교육열, 30년간의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 비록 70, 80년대 좌우 이데올로기라는 편협함을 낳았지만 - 사회의 건강한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지식층들이 각계 각층과 각 분야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것이 전환기를 맞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가능성의 근거이다.

1999년 출판의 현실인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간의 흐름과 성과에 대한 반

성과 성찰, 새로운 패러다임과 중심을 세우기 위한 지식과 정보, 메시지들을 출판이 제공해야 한다. 아직 우리에게 새로운 세기를 열 총론적 지식의 틀과 성과는 취약하다. 그러기에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과 예술, 경제와 경영학, 기타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그간에 쌓아온 성과와 가능성 있는 주제들의 작업을 출판으로 모아내야 한다. 해외서의 출판 흐름은 이미 준비된 상태로 총론과 각론의 영역에서 이러한 요구에 답하는 기획들이 선보이고 있고 1999년과 2000년 출판의 주요한 흐름으로 선보일 것이다.

변화와 다양성, 균형과 새로운 중심, 성찰과 모색, 전통과 현대, 세계와 나, 서양과 동양. 1999년은 이러한 전환기적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해이다. 전문가와 매니아, 대중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이뤄지기 위해서는 출판인들이 반걸음 먼저 움직이고 생각해야 한다. ❖

알림

새해, 새로운 기획을 마련합니다

새해를 맞아 《출판저널》이 더욱 새로운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서고자 합니다.

신년호 지면에 소개했던 "21세기에 빛날 20세기 책들"은 올 한해 꾸준히 집중적인 리뷰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로 기획한 "건국 50년, 책의 사회사"는 다음호부터 연재합니다. 연재에 앞서 이번호에 '특별좌담'을 개최, 해방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주요 출판 흐름과 시대적 배경을 총론적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또한 출판 마케팅의 시각으로 책과 시장의 매커니즘을 분석한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의 <마케팅 캠프>가 매호 독자를

찾아가며, 지난해 계속해온 <이달의 출판광고>는 형식을 바꿔 <출판광고 클리닉>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독자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독서퍼즐>란을 마련, 책과 독서 주변을 퀴즈와 퍼즐로 즐기는 공간도 준비했습니다.

《출판저널》은 '책'에서 시작하고 '책'으로 모여드는 모든 이야기를 늘 새롭게 담고자 노력합니다. 1999년도 《출판저널》의 또다른 지면과 더불어 풍요로운 책문화의 산책길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

《출판저널》 편집부